

# “더욱 철저한 교육행정 필요”

### 도의회 교육위, 학생 안전·교권침해 대응 등 집중 지적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12일 2019년도 전북도교육청 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학생들의 건강유지와 안전,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 집중 지적했다.

김명지(전주8) 의원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본 의원이 지난 1월 도내 학교 시설 개방과 이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도민들이 학교시설 사용에 부담을 덜어주려 했지만, 오히려 학교들이 개방하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학교시설 개방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학교별 시설사용료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라면서 “학교장 임의로 시설사용료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도민들을 위해 학교시설 개방과 이용에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형철(비례대표) 의원은 “혁신학교의 존재는 도교육청 인사와 관련이 있다”면서 “혁신학교를 이어갈 의지가

없는 교장이 배치되면 제대로 된 혁신학교 운영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도 중요하지만 혁신학교의 사업효과가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하고, 인사문제로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가면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훈열(부안) 의원은 “학생들에게 민주시민 육성 지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교육과 독서교육”이라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 외에 의무도 있기 때문. 환경과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고 더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수(전주6) 의원은 “올해는 독립운동 100주년”이라면서 “특히, 지난 7월부터 이어져 온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제유령 퇴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 교육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일제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하는 교육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시행하라”고 당부했다.

김종식(군산2) 의원은 “교육감 공약

이행률이 33.8%”라면서 “저조한 것이 아닌가. 대안교육과 학교자치, 관사 현대화, 해양안전체험관 사업 분야를 더 관심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도내 놀이공간 사업에 만족도 향상 방안과 지자체 연계 설치 지원사업도 추진해보라”고 말했다.

박희자(비례대표) 의원은 “도내 교육현장에서의 총 급식예산은 2천3백억원”이라면서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는 급식유통과정의 체질이 개선돼야 하고, 도내 지역 생산품과 관련해 도청과 연계해 광역공급급식지원센터 등 공동운영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전국체전과 함께 소년체전 전북대표 선수 즉, 장애인선수와 비장애인선수들의 훈련비 책정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면서 “장애인은 31만명, 비장애인은 50만명의 훈련비 차별은 현 시대와 맞지 않다. 다 같은 도내 대표선수들이기에 때문에 같은 훈련비 지급 등의 처우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 마련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 문대통령, 부산서 아세안 회의 ‘봄업’ 행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부산에서 취임 후 세 번째로 현장 국무회의를 열고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봄업’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벡스코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리는 곳이다.

현장 국무회의가 개최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다. 앞서 문 대통령은 3·1절을 앞둔 지난 2월 26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이슈가 한창이던 지난 9월 10일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회의를 열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연 것은 한·아세안 회의 성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모으는 한편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

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라며 “아세안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동반 성장의 상생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위원들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배지를 달고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국무위원들을 비롯해 오거돈 부산시장도 처음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와 부산시에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나라들과의 협력 속에서 완성된다”며 “아세안 각국의 국가발전 전략과 조화를 추구하는 신남방정책의 정신이 이번 특별정상회의의 행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 성과를 통해서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산 시민들은 물론 국민들께서도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린다”며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서 다채롭게 마련된 부대행사에도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함께 즐겨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 도의회 환경복지위, 복지여성보건국 행감 실시... 미진한 업무추진 질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는 12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추진을 질타하며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병철 의원(전주5)은 도내 목욕업소 레조넬라균 검사는 1리터당 1,000개 이상이면 관련 규정위반이고 내년부터 1차 개선명령, 2~3차 15~30일 영업정지, 4차 폐쇄명령이 내려지는 등 관련 행정조치가 강화되고 목욕조 검사대상에 포함되는데, 전주시의 경우 2019년 76개 시설 중 31개 시설에서 레조넬라균이 1리터당 40만마리까지 검출되는 등 예방대책이 시급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및 신규지정 관련 도 자체의 인센티브나 불이익 조치가 필요하며 2020년도 권역재활병원 유지 관련 정치권 등과 협력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최찬욱 위원장(전주10)은 어린이청의체협관의 광대한 녹지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어린이들을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도 어린이청의체협관과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의 경우 시설관리직만 10여명 정도라며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인력충원을 지시했다.

황의탁 의원(무주)은 의원연구단체인 전라북도보건의료발전연구회의 태안군 보건의료원 방문결과, 태안군은 단체장이나 군의원들이 자신들의 군민들이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다른 지역 병원을 가야하는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이 뚜렷했다며 그 이유로 “세금은 태안군에 내고 병원은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느냐?”, “다른 곳으로 가면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교통비, 간병비, 치료비, 입원비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데, 군민들이 시간 들여 병원비 등을 타 지역에 유출하는 것을 감안하면 세금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자를 감수해서라도 활성화시켜야 군과 군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더라며 우리 전북 보건의료 행정가들도 기능을 상실해가는 보건 의료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시험지원센터 구축으로 올해만 9억83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수십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응급실의 불친절이나 진단 및 치료 지연, 과잉진료 등 불만사항에 대해 따져 묻고, 만일 개선의 의지가 없다면 관련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며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1)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위한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 따져 묻고 2020년 시행계획을 즉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완수 의원(임실)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이 일몰적이지 못하고 성폭력피해 통합지원 종사자 11명, 학대아동쉼터 15명, 청소년쉼터 29명, 아동보호전문기관 68명은 특별수당을 못 받거나 적게 받고 있는데 차별이 아니며 특별수당을 적정하게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성폭력피해 통합지원(해바라기 위기형1), 학대아동쉼터(3), 청소년쉼터(5),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성폭력피해자보호(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4) 등은 시간외 수당이 없는데, 이분들은 시간외 근무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못 받고 있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국비지원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도비로 지원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2020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하라고 요구했다. /김진성 기자

## 도의회 문건위, 문화체육관광국 행감 시작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12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추진을 질타하며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관련, 전북도는 공공디자인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색없는 천편일률적 공공건축물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 SOC사업 대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총괄건축가제도를 도입하여 전라

북도만의 특색있는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한 현재 도내 243개 읍면동 중, 작은도서관이 운영되는 곳은 137개소로 읍면동 단위의 작은도서관 확충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조례”에 의거 읍면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 노력해야 하며, 3년마다 작은도서관 설립·확대·보수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운영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고받은 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추후

라도 연도별 작은도서관 확충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도서관 건립 및 운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동용 의원(군산3)은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주요업무보고 결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조 의원은 현재 전주시내권 내 어린이예술단원에게는 셔틀버스가 운영되는 데 비해, 그 외 타지역 단원에게는 버스가 지원되는 점을 지적하며, 예술단원 모집 시 지역 안배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모집과정이나 모집 후 단원소집 등에 있어 타지역 단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지역 안배가 가능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